

# '헤모힘' 암환자 면역조혈 증진효과 탁월

## 당귀 등 3종 생약재 혼합 유효성분 추출 제품

한국원자력연구소가 개발한 천연 생약 복합조성물인 '헤모힘'(HemoHIM)이 암환자의 면역조혈 증진과 방사선 및 항암제 치료 부작용을 줄이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연구소 방사선식품생명공학연구팀(과제 책임자 조성기 박사)은 최근 헤모힘을 원자력병원에서 암환자에게 임상시험한 결과,

이 같은 효과가 입증됐다고 최근 밝혔다. 임상시험 결과 헤모힘은 암치료 환자의 면역세포(백혈구) 회복 증진과 염증 등의 항암치료 부작용 억제에 뛰어난 효과를 보였다. 더욱이 노약자와 만성 질환자의 면역조혈기능 회복에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헤모힘은 우리 고유의 생약재인 당귀 등 3종을 혼합

하고 유효성분만을 추출해 만든 순수 생약복합조성물이다. 이 제품은 미국 식품의약청(FDA)을 통해 안전성 인증을 받았고 품질관리 규격도 완비했다. 또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 허가를 받기 위한 작업이 진행중이며, 허가가 나면 판매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헤모힘은 정부 산하 출연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원자력연구 기술을 출자하고 한국콜마(주)(사장 윤동한)가 자본을 출자해 설립한 출연연 제1호 기술출자 벤처인 (주)선바이오텍(SunBioTech)에서 생산 판매하게 된다.

# 제1회 평창 약초축제 개최

## 당귀 최대 생산지 ... 농가소득원 창출

국립공원 오대산 일대에서 약초축제와 대규모불교문화축제가 마련된다.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축제위원회(위원장 손태호)는 오는 8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제1회 Happy700 평창 약초축제'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축제위원회는 오대산이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당귀의 최대 생산지인 만큼 당귀를 주제로 한 다채로운 먹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하는 축제를 준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약초축제에는 당귀를 이용한 약술 담그기를 비롯해 엑기스 목욕체험, 방향제 만들기 등의 체험행사와 당

귀와 오가피 등 약초를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과 판매를 통해 주민 소득원도 창출하기로 했다.

축제위원회는 이를 위해 오는 17일과 21일 도·농교류 행사를 통해 외지 관광객들에게 축제 가상체험 행사를 벌이는 등 성공축제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 오는 10월 8일에는 조계종 제4교구 본사인 오대산 월정사에서 '오대산 불교문화 대축제'가 열릴 예정이다. 전형적인 불교문화제인 이 행사에는 최근 자매결연한 중국의 오대산 내 20여개사찰 스님들을 초청, 한국과 중국의 전통적인 불교축제를 성대하게 개최할 계획이다.

# 누에 가공식품 웰빙시대 건강식 각광

## 양잠농가 소득증진에 '효자' 노릇 "톡톡"

누에 가공식품이 웰빙시대에 건강식으로 각광을 받아 농가소득 증진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최근 경북 예천군에 따르면 지역 189개 농가에서 천혜의 자연조건을 이용해 47ha에 걸쳐 양잠을 하고 있으며 이들 농가는 이를 통해 연간 냉동누에 90t, 건조뽕잎 20t을 각각 생산, 300평당 160여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이 지역에서 누에는 누에가루와 누에환을 비롯해 동충하초, 누에

홍삼원, 누에진액, 누에그라 등 다양한 건강 보조식품으로 개발돼 판매되고 있다.

누에식품은 당뇨환자의 혈당조절용 보조식품이나 고혈압 환자의 건강증진 식품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동충하초는 항암 및 면역력 증강, 피로회복 등에 탁월한 효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수번데기는 누에그라를 비롯한 남성 건강식으로, 잠분은 화장품 원료로, 뽕나무 가지는 한약재 원료로 각각 이용된다.

이처럼 양잠산업이 누에 고치를 생산하던 실크산업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

는 기능성 식품산업으로 떠오르자 양잠을 포기했던 농가들이 다시 뽕밭을 조성하는 등시육 규모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특히 공한지나 척박한 땅에서도 뽕밭을 조성할 수 있는데다 농한기에 사육을 하고 사육 기간도 15일 정도로 짧아 양잠이 지역농가의 특화산업으로 큰 인기를 모을 것으로 예천군측은 전망했다. 예천군 관계자는 "양잠산업은 누에는 물론 부산물인 뽕잎이나 뽕나무 가지 등도 판매할 수 있어 경쟁력이 높다"며 "앞으로 단순 가공제품에서 벗어나 뽕나무 부산물인 오디를 이용한 오디잼과 오디음료, 뽕잎차 등 다양한 형태의 식품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장뇌 추출물로 기능성 화장품 개발

장뇌 추출물을 이용한 기능성 화장품이 개발됐다

경북 안동시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팀과 안동정보대, 지역 독농가 등이 공동 개발한 이 제품은 식용 장뇌의 항산화 기능과 면역력 증강 성분을 활용한 것으로, 장뇌에 포함된 사포닌류 등의 유효성분이 피부미용에 뛰어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피부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 보습력도 좋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뇌 화장품의 관능검사 결과 보습 및 수렴성, 유연성 모두 10만점으로 나타났으며 피부 트러블도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10g 정도의 6년근 장뇌에서 3~4g의 원액을 추출해 유효 약리작용을 가진 성분을 분리, 농축한 다음 이를 첨가제와 혼합하고 숙성, 여과 등의 과정을 거쳐 화장수와 화장크림 등을 생산하게 된다.

안동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장뇌 화장품은 현재 완제품 생산에 들어간 상태"라면서 "지역 특산품으로 육성해 인터넷 쇼핑몰과 방문판매 등을 할 경우 연간 4조~5조원의 매출이 가능해 농가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054-829-9916.

"더울 땀 칩뿌리차를 마셔 보세요"

여름은 만물이 왕성하게 번성하는 시기이지만 사람에게서는 습기가 많고 더위에 지쳐서 식욕이 떨어지고 활동하기가 힘들며 정신도 나른해지기 쉬운 계절이다. 또 밤이나 낮이나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어 충분한 수면을 취하기 어렵고 땀도 많이 흘리게 돼 건강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

(생맥산)를 상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생맥산은 인삼과 맥문동, 오미자라는 3가지 한약재를 혼합해 달인 물을 가리킨다.

인삼은 기운을 보충하는 작용을 하고, 맥문동은 심장에 활력을 주고, 땀으로 소모된 몸안의 수분(진액)을 보충하는 효능이 있다. 또 오미자는 너무 많은 몸안의 수분이 밖으로 필요 이상으로 빠져 나가지

# 더울땀 '생맥산·칩뿌리차' 마시자

## 생맥산은 인삼·맥문동·오미자 혼합물

요한 때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여름철에 더위에 상하지 않기 위해선 무엇보다 장시간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고, 불가피하게 한 낮에 외출할 때는 차양이 넓은 모자를 쓰는 것이 좋다. 물론 습기와 열기가 높을 때에는 과로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또 에어컨이 있는 곳에서는 때때로 몸을 움직여 혈액순환을 도와야 냉방병을 예방할 수 있다.

더위를 이기는데 도움이 되는 한방차

않도록 하는 작용을 한다. 갈근(칩뿌리)차도 이롭다. 한의학에서 칩은 열을 내려주고 갈증도 해소시키는 효능을 가진 약용식물로 통하기 때문.

서울 삼성동 광동한방병원 침구과 한상균 박사는 "최근에는 관상동맥의 혈류량을 높이고 근육을 이완시키며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혈압을 낮추는데 기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칩뿌리"라고 강조했다.